

제207회 정기 중앙총회 인사말씀

산천을 물들이는形形色색의 단풍을 누리고 있다 보니 어느덧 매서운 바람이 느껴지는 계절입니다. 벌써 겨울의 초입인 입동을 맞이하고 있으니 세월은 늘 우리들의 정진을 재촉하고 있습니다. 이번 제207회 중앙총회 정기 회를 맞아 지난 2년간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총회의장 성문스님과 의장단 여러분, 각 분과위원장 스님들께 고마운 마음을 담아 인사드립니다. 총회의원 여러분 모두의 노력으로 종단은 한걸음씩 진전하고 있습니다. 거듭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렇게 노력해 온 총회와 발맞추어 집행부 역시 종단의 미래 불사를 하나 둘씩 완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승려복지제도 혜택을 구축계 이상 모든 승려로 확대하여 지원을 강화했고 내년에는 국민연금 지원제도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우리말 조석예불의식 및 기본 의례가 완비되어 확산돼 나갈 예정입니다. 종단 수익사업 단위 관리 및 정책 개발을 위해 사업부를 신설했고 신도시 종교용지 확보에 이은 시설 건립 등 종단 목적불사가 진행 중입니다. 총본산 성역화 불사 역시 차근차근 진척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번 2561년 중앙총무기관 예산도 그러한 기초 하에 편성했습니다. 목적불사에 따라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액이 증가하여 인건비나 신규 사업 등은 최대한 억제하고 효율을 도모했습니다. 아울러 종단의 중기적 재정대안을 만들기 위해 종도들의 형평성을 고려한 분담금 제도개선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종단 발전, 불교의 미래라는 관점에서 살펴주시고 지혜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기 위한 종단적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승과평이 설치되었던 도량인 봉은사는 교학과 선수행의 전통을 크게 진작시킨 불교 중흥의 도량입니다. 서울 강남 문화벨트의 중심이자 한국불교의 미래를 열어나갈 매우 소중한 자산입니다. 1970년 산자부와 서울시가 갖은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강탈해 간 옛 봉은사의 경내, 한전 부지에 현대자동차 사옥 개발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봉은사에서 불과 280M의 거리인데 그 높이만 553M, 105층의 규모로 세계 최고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제2롯데월

드 보다 불과 2M 낮고, 남산타워 꼭대기에 다시 아파트 20층을 더 올린 것과 같은 위압적 높이입니다.

이런 대형 개발을 방치한다면 옛 전통사찰 보존지를 환수한다는 목표 역시 요원해질 뿐입니다. 더구나 보물 등 각종 국가지정 문화재 1천여 점이 가득한 봉은사에 미칠 영향은 지대합니다. 이미 거대한 건물의 그림자로 경내가 뒤덮여 문화재 관리에 치명적인 훼손을 가할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빛반사, 교통문제, 싱크홀, 소음, 진동 등의 영향도 곧 나타날 것입니다. 초고층 마천루의 전망대에서는 경건해야 할 신도들의 기도와 신행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신도들의 신행이 크게 위축될 우려마저 있습니다. 이렇게 높은 건물이 한번 들어서면 계속해서 초고층 건물이 들어서게 되어 건물 수명과 상관없이 수천 년간 그 피해가 지속될 것입니다.

문제점만 수십, 수백 가지인 대형 개발을 서울시가 초고속으로 승인해 나가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현대자동차와 불과 6개월 만에 합의한 사전협상 내용을 그대로 준수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의 추세면 내년 상반기에 모든 인허가가 마무리 됩니다. 개인이 잡하나 고치려 해도 행정절차만 몇 년이 걸리기도 합니다. 제2롯데월드도 20년 가까이 걸렸습니다. 지금 이 현대자동차 사옥 개발 사업은 전형적인 졸속행정이며 재벌특혜입니다.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고 사회적 정의를 회복하는 종단의 활동에 더욱 깊은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립니다.

이러한 종단적 과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사부대중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보살의 네 가지 방편인 보시(布施), 애어(愛語), 이행(利行), 동사(同事)를 실천해 나가는 승단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국민의 평화를 위해 정진합니다. 온화한 말과 행동, 중생과 고락을 같이하겠다는 간절한 원력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도반과 이웃, 못 생명 모두에 대한 무량한 대자비심을 실천하는 대승보살의 길을 함께 걸어갑시다.

불기2550(2016)년 11월 1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 승